

불기 2557년 내사랑 연등축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 9호

부산영산재 특별공연

- ▶ 일시 : 불기 2557년 (2013년) 5월 11일(토) 오후 5시
- ▶ 장소 : 구덕운동장
- ▶ 주최 : (사)부산영산재 보존회
- ▶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부산문화재단,
(사)부산영산재 보존회 후원회



한/국/불/교/대/중/화/의/선/두/주/자 영남불교예술대학



有人이면 事斯有요 有事면 斯有禮
有禮면 斯有義니라.

사람이 있으면 일이 있고 일이 있으면 예가 있고
예가 있으면 의식이 있느니라.

학인모집

- ♣ 기초반 (요령, 목탁다루는법, 조석예불 및 불공)
- ♣ 중급반 (대령, 관육, 시식, 사물다루는법)
- ♣ 전문반 (범음범패, 훗소리, 겹소리, 짓소리)
- ♣ 교육시간 : 매주 수, 목 오후 3시
Tel. 051) 327-5095 / 010-2314-1279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 부설

嶺南佛敎藝術大學

Young Nam Buddhism College of art s

※본 홍보물은 2013년 지역문화 예술육성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부산 영산재 특별공연을 맞아’



사단법인
부산 영산재 보존회
이사장 혜웅

귀의 삼보하옵고
삼가제방 대덕의 법체가 청안하시길 기원합니
다.본단체는 옛부터 엄숙한 불교의식이자 신앙
그 자체로 인해 악보없이 어장에 의해 구전심수
되었는데, 지금은 불교의식의 간소화시대로 말
미암아 전수가 활발하지 못하여 어산이 매우 희
소하게 되었습니다.

역대로 품위있는 의식의 음악이며, 더욱이 예술
적으로 빼어난 범패는 판소리, 가곡과 더불어
한국의 3대 성악곡으로 일컬어지는 귀중한 문
화유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존회 회원들
은 전통문화 예술을
많은 대중들이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게
대중속의 예술로 승화
시키기 위해 많은 노
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으로 영남범패의 전
통을 자랑하는 부산 어산회의 맥을 이어 본 보존
회 회원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예술적 기량을
여러분 앞에 선보이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기대하는 바
입니다.

저희 보존회 회원들은 전통문화 예술을 많은 대
중들이 친근감있게 다가갈 수 있게 대중속의 예
술로 승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
다. 훌륭한 전통민속 예술인 영산재가 친근한
우리문화로 시민들의 곁에 남기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사) 영산재 보존회 연혁

- 1992년 5월 30일 제 21회 부산민속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 1992년 9월 25일 제 33회 전국 민속경연대회 공로상 수상
- 1992년 4월 20일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기능보유자 지정
범패 및 장엄 : 구암 스님, 범패 : 혜웅 스님
나비작법 : 해강 스님, 바라작법 : 청공 스님
- (사)영산재 보존회로 결성
- 1993년 6월 1일 제 22회 부산민속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 1993년 6월 5일 본 영산재보존회 사단법인 인가
- 1993년 9월 15일 사상 최초 구암 스님 영남범음범패 음반 제작
(KBSTV 9시 뉴스 방송), 서울 불교 방송 출연
- 1996년 10월 각 언론사 영남 범음범패 촬영 홍보
민속경연대회 출전(매년)
- 1997년 5월 부산 영산재 정기 공연(매년)
- 2004년 11월 23일 팔관회 영산재 공연(매년)
- 2005년 10월 부산 영산재 정기공연
- 2006년 5월 부산 영산재 정기공연
- 2007년 5월 19일 작법무 보유자 해강 스님 열반
- 2007년 5월 27일 문현 금융단지 정기공연
- 2008년 5월 10일 부처님 오신날 봉축 시연
- 2009년 5월 팔관대재 영산재 공연
- 2009년 10월 부처님 오신날 봉축 영산재 정기공연
- 2010년 5월 팔관대재 영산재 의식 집전
- 2010년 10월 부처님 오신날 봉축 영산재 정기공연
- 2011년 5월 팔관대재 영산재 의식 집전
- 2011년 10월 부처님 오신날 봉축 영산재 정기공연
- 2012년 5월 팔관대재 영산재 의식 집전
- 2012년 10월 팔관대재 영산재 의식 집전

공연내용

- 타종
- 삼신이운(범패성)
- 천수바라작법
- 현좌계(짓소리)
- 다계
- 오공양나비작법
- 축원(화청)

출연진

- 범패부 -

범패후보 : 보암 스님
 범패조교 : 대원 스님
 범패조교 : 성림 스님
 이수자 : 선산 스님
 동암 스님
 혜철 스님
 범패 이수자 다수출연

- 나비작법 -

나비작법 보유자 : 경호 스님
 나비작법 전수장학생 : 원산 스님
 나비작법 전수장학생 : 혜화 스님
 나비작법전수생 다수출연

- 바라작법 -

바라조교 : 보련 스님
 이수자 : 종민 스님
 이수자 다수출연

영산재 의식의 절차에서 전통문화의 요소를 내포한 음악적, 무용적 요소와 더불어 연극적 요소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음악적, 무용적 요소란 의식 진행중에 범패와 나비작법무, 바라작법무가 선보이게 된다.

영산재의 의미와 기원

영산재란 영축산에서 석가모니불의 설법 모임을 뜻하는 영산회상을 상징화한 의식의 한 형식이다. 영산회상의 상징화란 석가모니불의 설법장에 모인 모든 중생이 환희심을 일으키고 법열에 충만한 분위기를 오늘에 재현한다는 구성내용을 말한다. 죽은 영혼을 천도하는 의식뿐만 아니라 영산법회를 상징하는 불교의식을 뜻하며, 다른 불사의식에서도 영산법회를 상징화하면 이를 영산재라 한다.

영산재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영산재를 구성함에 있어 기본 요건이 되는 범패는 인도에서 연원하여 불교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 그 시초는 불교가 발달하기 이전인 바라문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범패란 부처님께 예경하는 의식에서 스님들에 의해 불려지는 음악을 말하는 것으로 범음, 아신, 인도소리 등을 이르는 우리나라 유일의 불교의식 성가이다. 범패의 범(梵)은 '우주의 근본원리'를 일컫는 말이며, 범어 hass의 음역인 패(頤)는 '찬탄하다'는 의미로 '엄불하는 소리, 노래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역대로 품위있는 의식이 음악이며 더욱이 예술적으로도 뛰어난 범패는 가곡, 판소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성악곡으로 일컬어지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가곡과 판소리는 모두 다중에 의해 전승되어 보존보급에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비하여 오직 범패만은 보급은 고사하고 면면히 이어온 전통의 유지도 불급한 실정이다.

개요

일반인에게는 접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우리 전통음악인 범음, 범패를 영산재 시연을 통해 대중에게 소개하며 우리 전통 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그동안 분회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집대성하여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영산재의 범패를 세상에 첫 공개함으로써 문화적 보존가치를 더욱 향상시키고자 한다.

취지와 목적

영산재는 불교의식의 한 형태로 교리적으로 보아 심오하고 도량의 설치가 장엄의 극치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행절차가 음악, 무용 등의 각종 문화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전통문화의 보고라 할 수 있는데, 일반 대중에게는 전통문화보다는 종교의식으로 많이 인식되어 있어서 우수한 전통문화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현실이다.

본 회에서 이번 영산재 발표회를 통해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영산재" 보존과 발전을 위한 저변 인구의 확대를 영산재 대중화에 기여 하고자 한다.



부산 범패 종류와 범음성의 분석

범패는 안채비소리와 걸채비소리의 훗소리와 짓소리 및 걸청성 등 대여섯 종류가 있지만 이 중 안채비소리가 광의(廣義)의 범패이나 진정한 의미의 범패는 걸채비소리만을 이른다.

부산범패에는 안채비소리와 화청, 회심곡 등은 여기(餘技)로 습득 되어 있으며 걸채비소리는 소리성이 다양하고 우렁하며 엄숙한 느낌을 주는 소리가 많다. 또한 걸채비소리 중 훗소리와 짓소리가 있는데 훗소리는 향제이나 전통성이 강하며, 짓소리는 윗넙소리의 짓소리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오히려 겹소리에 가깝다. 따라서 부산범패의 짓소리는 아직 명맥이 남아 재의식문 내용절구에 따라 소리가 정해져 내려오고 있다.

소위 소리명칭에 있어서 35종류의 성이 있어 길게 부르며 장식음이 많은 특징이 있다.

35종류의 범패성

- | | | |
|-----------|--------------|---------------|
| 1. 거불성 | 13. 실개수공성 | 25. 조어사성 |
| 2. 진령성 | 14. 사다라니성 | 26. 아아흙성 |
| 3. 소청진언성 | 15. 위신력성 | 27. 악귀의성 |
| 4. 유치성 | 16. 옹호계성 | 28. 지심신례성 |
| 5. 가영성 | 17. 산화락성 | 29. 착어성 |
| 6. 원강성 | 18. 불보살성 | 30. 복청성 |
| 7. 현좌성 | 19. 수아정례성 | 31. 관육계성 |
| 8. 다계성 | 20. 절규성(결계편) | 32. 소문성 |
| 9. 공양진언성 | 21. 할항성 | 33. 봉송계성 |
| 10. 운심계성 | 22. 연항계성 | 34. 지심귀명례성 |
| 11. 오공양성 | 23. 진법성 | 35. 영산통문(門) 등 |
| 12. 이차가지성 | 24. 삼각원성 | |



부산어산회에서 채록된 범패는 짓소리와 겹소리도 있지만 훗소리와 내채비 중심으로 할 때가 많아 내채비소리는 대체로 한문절구식이 많아 그 기본의 성음은 애이안(哀而安)하는 평성과 청이원(淸而遠)한 거성. 여이거(勵而舉)한 상성. 직이촉(直而促)하는 입성의 사성이다. 이 사성으로 꾸미는 범음성은 대략 여덟종류가 있는데

- | | |
|------|----------------------------|
| 첫째는 | 낮은 음으로 시작되는 시작소리이며 |
| 둘째는 | 낮은 굴곡으로 끝마치는 종작소리이고 |
| 셋째는 | 음성이 바뀔 때나 소리를 끌어갈 때의 굴곡성이고 |
| 넷째는 | 비로봉을 향해 치달아 올라간 소리인 상렴성 |
| 다섯째는 | 비류직하 하는 애완(哀婉)의 소리인 하렴성이고 |
| 여섯째는 | 구비 구비 호소하는 소리인 애완성(哀婉聲)이고 |
| 일곱째는 | 멀리 보내어 알리는 청원문성(淸遠聞聲)이고 |
| 여덟째가 | 일반적 상소의 소리인 원력성(願力聲)이다. |

뿐만 아니라 일장의 음곡 후에 부치는 후렴성이 있다. 또 이들 소리는 의식의 경구나 계송의 명칭에 따라 사구성, 복청성, 산화락, 불보살성, 다계성, 위신력성, 진언성, 저불성, 진령계성, 합장계성으로도 나뉘며 특히 독창은 독락성(獨樂聲)이라 하고 합장은 공락성(圓樂聲)이라고도 한다. 또한 정직, 화아, 청철, 심만, 원문을 나타내는 오범성(五梵聲)이 있다.